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1. 북미 물류시장 매출액과 물동량 지속 증가 전망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자율주행차량, 운송생태계 변화 주도 예상
2.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법 도입 임박
3. 반독점 위반에 따른 중국 주요항만의 조치와 영향
4. 태국, 미얀마 국경 운송 확대를 위한 협약 및 인프라 투자 추진

명사 스피치

“국가가 있기 때문에 해운이 있고, 해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 해운업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협력해야 한다. 좁은 시장에서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.”

김철봉 SM상선 대표이사 사장
(2017. 9. 13. / ChosunBiz)

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북미 물류시장 매출액과 물동량 지속 증가 전망

북미 물류시장 매출액 및 물동량 예측치(2015-2024)

(단위 : 10억 US달러/10억 Ton)



자료 : Global Logistics Market

- 북미지역 물류시장의 2015년 매출액은 2조 37억 9천 US달러를 기록함
- 북미지역 물류시장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연평균 7.1%씩 성장해 2024년 3조 6,837억 US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
- 북미지역 물류시장의 물동량은 2015년 1,202억 톤임
- 북미지역 물류시장의 물동량은 2016년부터 연평균 6.1%씩 증가해 2024년 2,046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

■ 참고자료 : Transparency Market Research, *Logistics Market: Global Industry Analysis, Size, Share, Growth, Trends and Forecast, 2016-2024*, 2017.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자율주행차량, 운송생태계 변화 주도 예상

- 자율주행차량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며, 그 영향은 160년 전 철도가 최초로 도입된 경우처럼 상업용 화물 운송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- 경제 전반적으로는 운송료 절감, 도로 혼잡 및 대기오염 감소 등의 혜택을 보겠지만, 상업용 차량 생태계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
- 트럭운전자, 재교육·재배치 없이는 실업 위기에 직면하게 됨
 - 트럭운전자는 초기 자율주행차량의 오작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되겠지만 자율주행차량이 시행착오를 거쳐 운전 기술이 완벽해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해고될 전망이다
 - 과거 트럭운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도 중산층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음
 - 트럭운전자의 일부는 자율주행차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자로 재훈련 및 재배치될 수 있음
- 트럭 OEM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됨
 - 자율주행트럭은 사람과 달리 운전시간 제한이 없어 더 많이 가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트럭 내구성이 중요한 인자로 대두됨
 - 자율주행트럭은 엄격한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차량 수명주기 동안 잦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됨
 - 미래 트럭 가동률이 현재보다 50~100% 가까이 향상되면 트럭 생산이 급감해 생산라인 작업자는 축소될 것임
 - 트럭의 경제수명 기간 동안 여러 번 재생산 및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트럭 당 가격은 상당히 증가할 것임
- OEM 트럭 판매점,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로 완전 전환 가능성 높음
 - 트럭 주행시간 증가로 인한 신규 트럭 판매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딜러(판매자)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개편해야 함
 - 이러한 문제로 OEM 트럭 판매점은 트럭회사에 운영리스를 통해 자율차량 소유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는 재생산·업그레이드 수익을 얻을 것인가 문제에 봉착함
 - 전통적인 판매팀은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,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OEM 판매 채널 전략과 궁극적으로 차량 소유주에 따라 결정됨
- 보험회사, 교통사고 감소로 보험금 청구가 급감함
 - 맥킨지사는 미국 자동차 사고율이 자율주행차량 덕분에 90%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함
 - 인간은 로봇보다 덜 안전한 운전자로, 자율주행차량 덕분에 보험금 청구가 급감할 것임
- 정비공장, 유지보수 및 부품 수요 지속적으로 감소함
 - 자율차량 소유주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장을 수리하거나 예방하는 유지보수 프로세스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음
 - 유지보수 비용은 운영비의 15~25% 수준임
 - 자율주행차량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고 전자적·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존 트럭과 달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량 시스템이 더 많이 구동됨에 따라 부품 수요 또한 감소할 것임



- 충돌사고 복원 정비소, 수리 수요가 극적으로 감소함
 - 사고율 감소와 함께 충돌에 따른 수리 수요가 감소해 유지보수 및 정비 프로세스에 고용된 기술자, 부품, 정비 수에 영향을 줌
 - 차량에 사용된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리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, 충돌 비율의 90% 감소는 충돌에 따른 정비비용의 50% 증가로 상쇄됨
- 숙박시설, 트럭운전자 숙소로 수입이 큰 타격을 입음
 - 장거리 운전자는 일일 운전 한도에 도달하고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트럭 내 운전실 또는 인근 숙박 시설을 이용함
 - 트럭운전자가 숙박시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일년에 평균 250박 숙박권을 제공하는 저비용 모텔 및 호텔의 등장 등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, 트럭 내 침대 칸 제조업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임
- 트럭 정류장, 시설은 사라지겠지만 미래 연료 보급 센터로서 가치가 있음
 - 주로 장거리 트럭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춘 트럭 정류장은 사라져야 하나, 미래 연료 보급 센터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인 고용 증가는 있을 것임
- 트럭 운전학교는 존폐위기에 놓이고, 트럭 운전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이 감소함
 - 트럭운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트럭 운전 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
 - 충돌사고에 의한 응급실 방문,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의 직업적 상해에 따른 병원 방문 회수가 감소하여 주요 의료 수익도 사라짐
- 트럭 생태계 참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켜야 함
 - 앞에 언급된 불가피한 변화는 20~4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임
 - 트럭운전자가 이러한 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임

■ 참고자료 : mhlnews.com, 2017.11.27.

이연경 부연구위원
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

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법 도입 임박

- 중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자국 최초 전자상거래 법안의 최종 확정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힘
-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인해 구상되었으며, 추후 소비자의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지난달 초 중국의 인민 대표 대회(NPC)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반불공정 경쟁법(Anti-unfair Competition Law) 개정안을 통과시킴
- 전자상거래 법 초안은 지난 2월 인민 대표 대회(NPC)에서 2차 독회를 마쳤으며,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도입되기 전에 최소 1번 이상의 독회가 더 있을 예정임
- 제일 최근 공개된 전자상거래 법 초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(Industrial and Commercial Administrative Departments)와 세무국(Tax Bureau)에 등록되어야 함
 - 단, 일반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산물, 수제 공예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임
- 또한,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, 판매 데이터, 소비자의 구매 후기 공개 등이 금지될 예정이며, 특히 유료 검색 결과는 광고로 분류될 예정됨
 - 이 외에도 가격 책정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질 예정임
- 중국은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 시장으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만 해도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9.8% 증가한 3조 9,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3,7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■ 참고자료 : www.caixinglobal.com, 2017.11.28.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 051-797-4690, cblee@kmi.re.kr

반독점 위반에 따른 중국 주요항만의 조치와 영향
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: China'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)는 최근 중국 항만의 반독점(Anti-trust) 위반 감사를 수행함
 - 우선적으로 중국 주요 항만은 컨테이너 화물취급 수수료(Cargo Handling Fee)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밝혀짐
 - 또한 해운기업들이 예인, 화물취급 및 기타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항만운영사의 자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업체 선택권리가 제한되는 등 자율경쟁에 위반된 사례로 적발됨
 - 그 밖에 계약 시 거래기업에 대한 경쟁 금지, 로열티 조건(loyalty provision), 거래조건 오픈 조항 등에 대한 부당한 사례가 포함됨
- 이러한 반독점 위반 조치에 따라, 대부분의 항만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및 운영 체제를 재조정하도록 요구받음
 - 2018년 1월 1일부터 상하이, 톈진, 닝보-조우산, 칭다오 항만그룹의 컨테이너 화물취급 수수료가 10~20% 낮아지게 되며, 특히 상하이항은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19.4% 인하된 1TEU 당 480위안(약 78,000~80,000원 수준)으로 책정 할 전망이다
 - 탕산, 황화, 웨이하이항 등의 소규모 항만은 적발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
- 중국 NDRC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국 항만경쟁력 강화 및 합리적인 물류비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
 - 기존의 반독점적 관행은 실물경제 비용의 증가와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나아가 항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위반사례에 대해 항만에서 제안한 자체 조치사항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주요 항만들의 화물취급수수료 인하는 연간 5.3억 달러의 물류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며, 자국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상하이국제항만그룹(SIPG)은 이 같은 조치로 재정수익 감소 및 신용도 하락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함
 -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(Moody's)는 상하이항 화물수수료 인하로 인해 SIPG의 2018년도 수익성 및 현금흐름 생성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정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함
 - 화물취급수수료 인하로 인해 2018년도 SIPG 처리수익은 15억 위안에서 10억 위안으로 감소할 전망이다
- 중국의 화물취급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도 필요함
 - 중국 항만을 기항하는 선사들은 화물취급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

■ 참고자료 : www.worldmaritimenews.com, www.yicaglobal.com, 2017.12.01.

김보경 연구원

051-797-4674, kimb@kmi.re.kr

태국, 미얀마 국경 운송 확대를 위한 협약 및 인프라 투자 추진

-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국경 운송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협약을 추진 중에 있음
 - 미얀마 국제운송주선협회(MIFFA : Myanma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s Association)에 따르면 미얀마와 태국은 양국 간 국경 운송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초기 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음
 -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, 추진 방안 등이 주로 담겨 있으며, 미얀마는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CBTA(Cross-Border Transport Agreement)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국가가 될 예정임
- 국경 운송은 태국, 미얀마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주요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
 - 지난 2016년 6월 Daw 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무위원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정 논의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
 - Arkhom Termittayapaisith 태국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주요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ICD, 컨테이너 Depot 및 야드 등 내륙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
- 태국 정부는 태국 주요 항만에서 내륙 물류시설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국경 운송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 - 태국 정부는 최대 수출입항만인 람차방항 내 SRTO(Single Rail Transfer Operator)를 구축하여 항만과 내륙 물류시설 간의 이동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
 - 기존 야드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 후 화물차를 이용하여 ICD, DEPOT 등 내륙 물류시설로 이동했던 형태와 달리 내륙 물류시설까지 연결된 철도시설에 하역하는 방식으로 하역 및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라오스 등 주변국과의 국경 운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태국의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SRTO를 구축해 국경 운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

■ 참고자료 : www.mmtimes.com, 2017.12.04.
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